


日韓政治思想学会  
共同学術会議

# 東アジアと 国際政治思想

日時：2019年7月6日(土曜日) 10:00-18:00

場所：ソウル大学アジアセンター・ヨンウォンホール

主催：日本政治思想学会, 韓国政治思想学会,  
ソウル大学自由専攻学部,  
ソウル大学アジア研究所 

主管：韓国政治思想学会

# 목 차

## Session I “국가 간 관계의 이상과 현실”

- 국가연합에 의한 평화: 장 자크 루소의 세계질서구상  
가와데 요시에 (도쿄대학) ..... 11
- 근세 동아시아에서의 그리스도교계의 구상: 발리냐뇨의 정교이론  
오다 아키라 (라이덴대학) ..... 23
- 역사화해 관점에서 본 조선후기 변무사건: 영조 47년 고세양 사건을 중심으로  
이하경 (서울대) ..... 39

## Session II “경계짓기와 넘나들기”

- 코스모폴리탄이자 또한 애국자?: 중농주의자의 국제질서구상  
안도 유스케 (릿쿄대학) ..... 67
- 20세기 초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원주의: 대양적 사상사 너머의 모색  
바지 도모히토 (도쿄대학) ..... 81
- 일본의 ‘유학적/병학적 근대’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국제정치관  
김봉진 (기타큐슈대학) ..... 98

## Session III “균열, 그리고 사상적 모색”

- 국제정치사상은 어떠한 ‘이상’을 말할 수 있을까  
마쓰모토 마사카즈 (니혼대학) ..... 127
- 냉전 초기 국제정치지형을 둘러싼 지성계의 논쟁과 민족(주의국가)론의 균열들  
기유정 (서울대) ..... 145
-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의 위기: 공적 이성과 수렴적 언설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정훈 (와세다대학) ..... 164

# 目次

## Session I 国家間における理想と現実

- 国家連合による平和 —ジャン=ジャック・ルソーの 世界秩序構想  
川出良枝 (東京大学) ..... 17
- 近世東アジアにおけるキリスト教界の構想—ヴァリニャーノの 政教理論  
小田英 (ライデン大学) ..... 31
- 歴史和解の観点からみた朝鮮後期弁証事件—英祖 47 年高世讓事件を中心に  
イ・ハキョン (ソウル大) ..... 52

## Session II 境界と越境

- コスモポリタンで、かつパトリオット?—フィジオクラットの国際秩序構想  
安藤裕介 (立教大学) ..... 74
- 20 世紀初期、越境する多元主義—跨・大洋的な思想史の模索  
馬路智仁 (東京大学) ..... 90
- 日本の「儒学的/兵学的近代」と福沢諭吉の政治観  
キム・ボンジン (北九州大学) ..... 111

## Session III 亀裂、そして思想的模索

- 国際政治思想はいかなる「理想」を語りうるか  
松元雅和 (日本大学) ..... 136
- 冷戦初期の国際政治地形をめぐる 知性界の論争と民族(主義/国家)論の亀裂  
キ・ユジョン (ソウル大) ..... 155
- ロールズの秩序だった社会の危機—公的理性と収斂的言説についてのゲーム理論的分析  
チョン・フン (早稲田大学) ..... 182

## 20세기 초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원주의 - 대양적 사상사 너머의 모색

바지 도모히토 (도쿄대)

## 1. 들어가며 - 분석대상과 공간적 시각의 설정

20세기 초는 다원주의 사상이 개화한 시대이다. 1910년대의 J.N. 피기스(Figgis)나 해롤드 라스키의 저작으로 상징되듯, 이 시기의 영국에선 정치적 다원주의 이론(다원적 국가론)이 융성했다. 그들 다원주의자들은 국가 일원적 주권을 거절하고, 국가보다 작은 집합체인 단체의 집단적 의지에 기초한 자율적인 공동권의 확립을 지향했다.<sup>1)</sup> 그 사상은 곧바로 극동의 일본에도 전파되었다. 다이쇼 시대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나카지마 시게루(中島重)나 다카타 야스마(高田保馬)를 필두로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이 영국의 논의를 모범 삼아 다원적 국가론을 제기해, 「사회의 발견」 시대의 정치학에 독특한 색채를 더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중 이러한 시민적 다원주의와는 달리, 또 하나의 다원주의의 조류가 문명권을 횡단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식민 및 이주를 배경으로, 민족문화 간의 공존을 지향한 종족민족주의(ethno-national)적인 다원주의, 요컨대 20세기 후반 이후 대두한 다문화주의 이론 이전의 원형적인 다문화주의 사상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이런 다원주의에 초점을 맞춰, 영국과 미국, 일본을 넘나들며 그 대양횡단적인 지식연쇄 및 공명을 분석한다.

본고는 이즈음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한 사상사의 문헌에서 얻은 착상에 기초해, 이상의 분석을 정치사상사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을 뛰어넘는 한 사례로서 제시한다.<sup>2)</sup> 여기서 말하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이란, 특정한 정치공동체(대개의 경우 국민국가)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그 경계(국경) 안/밖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안쪽의 동향에 주요한 초점을 맞추는 연구태도를 의미한다.<sup>3)</sup> 단적으로 말해, 그것은 「영국」정치사상사, 「독일」정치사상사, 「일본」정치사상사...라고 하는 틀 자체를 생산, 재생산하는 연구태도이다. 본고는 이런 정치사상사 연구에서의 종래 틀에 대한 상대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로서, 20세기 초기의 종족민족주의적 다원주의를 둘러싼 국경횡단적인 사상의 교류 및 유사한 사고양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속성에 대한 과소평가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래 연구접근에서 보이는 국경 안/밖에 대한 엄격한 구별을 상대화하여, 지적 공명과 유사한 사고양식이 자아내는 국경을 뛰어넘는 -특히 본고의 경우 대양을 뛰어넘는- 「연설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sup>4)</sup> 본고는 그러한 보다 마크로한 공간적 시점에서 종족민족주

1) David Runciman, *Pluralism and the Personality of the State*, revised ed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chs. 5-10.

2) 특히 Samuel Moyn and Andrew Sartori eds., *Global Intellectual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3) 물론 「수용사」는 경계 바깥쪽에 있는 수용하는 사상의 검토를 포함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그 사상을 수용했는가라고 하는 안쪽의 현상 분석에 초점이 있다.

4) 이 용어는 James Kloppenberg, *Uncertain Victory: Social Democracy and Progressivism in*

의적인 다원주의의 대양횡단적 전개를 음미한다.

## 2. 세계주의의 세계

대서양 (영국)과 태평양 (일본)을 좌우로 바라보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자. 20세기 초 미국에는 그러한 다원주의를 제창한 이로서, 급진적 평화주의자였던 랜돌프 본 (Randolph Bourne)이 존재한다. 본은 제1차 대전 중 미국의 참전지지를 표명한 존 듀이나 허버트 크롤리 (Herbert Croly) 같은 지도적 혁신주의자를 통렬하게 비판한 논문 「전쟁과 지식인」(1917)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sup>5)</sup> 하지만 그는 또한 「국제적 국민 (international nation)」이나 「민족식민 (national colony)」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써서, 미국 시민사회의 이상을 다양한 유럽이민 간의 공존과 상호교류라 규정 한 다원주의자였다. 본은 그러한 이상을 「세계주의」이라 명명해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에 위치 지웠다.<sup>6)</sup>

「트랜스내셔널 아메리카」(1916)에서 본은, 20세기로의 세기전환기에 급증한 구대륙으로부터의 이민 (특히 동, 남유럽으로부터의 이민) 때문에, 오늘날 미국은 「이민되어진 유럽」을 형성하고 있다고 논한다. 그에 의하면, 유럽의 여러 민족이 유입되어 혼란스러운 이런 미국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은 앵글로색슨 문명에의 동화와 대조를 이루는 양태이다. 즉, 그것은 각각의 민족문화나 민족정신의 독자성을 유지한 위에 상호교류 - 그가 쓰는 어휘에서의 「교차적 비옥화 (cross-fertilization)」- 그리고 그를 통한 이민 각각에서의 「국제적 정신」의 확립에 다름 아니다. 미국 시민사회의 이상은, 대서양을 도항하는 이민의 문화적, 정신적 특수성을 입각점으로, 그들이 전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양한 민족 식민, 요컨대 외국 제문화로부터 이루어지는 코스모폴리탄 연합」에서 발견된다.<sup>7)</sup> 본은 이러한 하나 (이민 개개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다수 (동종의 다양한 민족 諸문화)의 조화에 기초한 미국 시민사회의 이상의 실현을, 특히 이민 제2, 제3세대에 기대한다. 「설령 그(=이민자 자손)가 아직은 식민자 (colonial)라 하더라도, 그는 이미 하나의 부분적 문화의 식민자가 아니라 여러 諸문화를 구유하는 식민자이다. 그는 세계의 식민자인 것이다.<sup>8)</sup>

이러한 본의 세계주의 구상은, ①구대륙 내셔널리즘과 ②미국에서의 인종주의 (앵글로색슨주의)라 하는 둘을 동시에 상대하고자 한 양방향으로의 작전이었다. ①에 관해서는, 미국사회에서 「국제적 정신」을 구유하는데 이른 유럽 이민의 자손을 본은 구대륙에 대한 「선교사」라 특징짓는다. 그에 의하면 내셔널리즘으로부터 해방된 이민자 자손은, 유럽대륙에서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전쟁의 씨앗을 안에서부터 부수고, 유

European and American Thought, 1870-192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3로부터 차용했다.

5) Randolph Bourne, "The War and the Intellectuals," *The Seven Arts* 2 (June 1917).

6) Bourne, "Trans-National America," *The Atlantic Monthly* 118 (July 1916); Bourne, "The Jew and Trans-National America," *The Menorah Journal* 2 (December 1916).

7) Bourne, "Trans-National America," pp. 90-94.

8) *Ibid.*, p. 93.

렵을 교화할 수 있는 존재에 다름 아니다. 그 때문에 본은 미국으로의 이민자 자손에 부여해야만 할 독특한 「이중 시민권」을 제창해, 그 중요항목으로서 미국과 그/그녀들의 조상 모국 사이의 「항상적인 자유통행권」을 내건다.<sup>9)</sup> 그는 이민자 자손에 의한 대서양의 횡단을 촉진시킴으로써, 미국의 이상인 국제주의의 점진적인 수출과 그를 통한 구대륙에서의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국민국가 간의 전쟁의 억제 계획을 계획한 것이다.

②에 대해 본은, 당시 『메놀라 지(Menorah Journal)』를 중심으로 앵글로 색슨주의에 대항하고 있던 호레이스 캘런(Horace Kallen), 헨리 후르위츠(Henry Hurwitz) 등 유대계 지식인과 공동전선을 폈다 (단, 그 자신은 유대계 출신이 아님).<sup>10)</sup> 1910년대, 20년대의 미국은, 「앵글로 색슨인」을 정점으로 하는 인종적 계층관이 유행하고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 존 랜돌프, 도스 파소스 (Dos Passos) 같은 여러 저명한 인물들이, 이러한 인종주의에 기초한 국내 사회에서의 제도개혁 및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어권 제국의 통합을 주창하고 있었다.<sup>11)</sup> 그러한 앵글로 색슨주의의 한 범주로서 그 극단에 해당하는 것이, 「북방인종 (Nordics)」의 지성적, 문명적 우월을 강조해 그 우월함의 근거를 생물학적 혈통에 귀속시키는 「생득주의 (Nativism)」이다.<sup>12)</sup> 매디슨 그랜트(Madison Grant), T. 로스롭 스토다드 (T. Lothrop Stoddard), H.P.페어차일드 등, 이런 조류에 속하는 이론가들 -오늘날 종종 트럼프 시대에서의 이민배척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은, 북미를 북방인종에 의해 지탱되는 「백인의 영토」라 규정하고, 백인의 퇴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유색인 이민의 배척론을 전개했다 (후술하는 대로, 복수의 일본인 지식인들이 태평양을 건너는 자국 이민의 장애물로서 이 이데올로기를 들게 된다).

본은 자신의 세계주의 구상에 의해, 생득주의라고 하는 개별 조류뿐만이 아니라 앵글로 색슨주의 전체를 비판하고, 유럽이민이 갖는 독자의 문화적, 정신적 정체성을 옹호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정치적/문화적 충성을 떼어놓는 것으로 완성이 가까워진다.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공통의 정치적 충성과 동시에, 그것과는 차이를 달리하는 인종, 문화면에서의 다극적 공익관계 (영국인의 자손도 그에 포함됨)의 확립을 통해서야 말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국제적 국민」이 실현되는 것이다.<sup>13)</sup>

다양한 유럽 이민이 자아내는 이러한 본의 다원주의론은, 상술한 유대계 지식인 호레이스 캘런과 공명하게 되었다. 그 자신이 동구로부터의 이민으로, 앵글로 색슨 인종주의의 대두에 위기감을 품고 있던 캘런도, 미국에서의 다양한 유럽 민족문화의 특수성 유지와 그런 전체로서의 유기적 일체성을 논리화했다 (그는 이 때 하버드 대학 시

9) Ibid., pp. 94-5.

10) Daniel Greene, *The Jewish Origins of 'Cultural Pluralism: The Menorah Association and American Diversit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11) Duncan Bell, *Reordering the World: Essays on Liberalism and Empi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ch. 8, pp. 189-96.

12) 예를 들어 Shannon L. Anderson, *Immigration, Assimila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American National Identity* (London: Routledge, 2016), pp. 42-8를 참조.

13) Bourne, "The Jew and Trans-National America," pp. 279-80, 281-2.

절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적 다원론을 원용했다). 캘런에 의하면, 하나와 다수의 조화로 특징지어지는 그러한 유기적 일체성은 음악의 비유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된다. 「『미국문명』은 『유럽문명』의 협동적인 화음 (harmony)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민문화라고 하는 「자연의 악기」에 의해 연주되어, 그러한 사이에 「불일치와 마찰」까지를 포함하는 「문명의 교향곡」에 다름 아니다.<sup>14)</sup> 캘런은 이러한 종족민족 주의적인 존재의 차이와 일체성이 공식적으로 전개하는 미국 다문화사회의 구상을 지칭해, 「문화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이라 이름 붙였다.<sup>15)</sup>

본고의 문제관심 상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존연구의 시각과는 달리, 이러한 다원주의론이 결코 미국에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sup>16)</sup> 오히려 본이나 캘런의 구상은, 북대서양을 끼고 동시대 영국에서의 유사한 이론을 참조하고, 그 제창자와의 지적 교류를 통해 같고 닮은 측면을 갖는다. 이런 영국에서의 대화 상대는, 브리튼이라고 하는 도서지역이 아니라 광대한 제국 -보다 정확하게는 입식자 제국 (the settler empire)- 를 무대로, 민족문화의 특수성과 유기적 일체성을 양립시키는 유사한 다원주의론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 3. 다원주의=국제주의 연방

20세기로의 세기 전환기에서, 대서양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영국에서는 본국 브리튼 섬과 세계에 산재한 이주 식민지(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지역)의 통합을 축으로 하는 거대 정치체를 추구했다. 「대 브리튼(Greater Britain)」, 또는 「영연방」이라 불린 공동체 구축을 향한 지적 프로젝트이다.<sup>17)</sup> 역사가, 법학자, 경제학자로부터 정치가, 소설가, 저널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당시 다양한 논자들 -J.R. 실리 (J.R. Seeley), E.A. 프리먼 (E.A. Freeman), J.A. 프루드 (J.A. Froude), A.V. 다이시 (A.V. Dicey), 제임스 브라이스 (J. Bryce), J.A. 홉슨 (J.A. Hobson), L.T. 홉하우스 (Hobhouse), 찰스 딜크 (C. Dilke), 세실 로즈 (C. Rhodes), W.T. 스테드 (W.T. Stead) 등- 이 이러한 거대 정치체의 구상을 제출했으며, 그 지적인 모멘트는 에드워드 왕조 말기에 결성된 원탁 (RT)운동으로 계승되었다. 해동 운동은 라이오넬 커티스, 필립 커 (P. Kerr) 등, 이른바 「밀너의 유치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옹호단체로, 1926년의 벨푸어 선언, 나아가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규정된 영연방 창설의 커다란 원동력이 됐다.<sup>18)</sup>

14) Horace Kallen, "Democracy versus the Melting-Pot: Part II," *The Nation* 100, no. 2591 (25 February 1915), pp.219-20.

15)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rno Press, 1970 [1924]), p. 11.

16) 이러한 사상은 통상 (캘런의 표현을 빌어) 문화다원주의론으로 묶여져, 일반적으로 「미국」정치사상의 한 단면으로서만 언급된다. David Hollinger, "Cultural Pluralism and Multiculturalism," in Richard W. Fox and James Kloppenberg eds., *A Companion to American Thought* (Cambridge, MA: Blackwell, 1995).

17) Duncan Bell, *The Idea of Greater Britain: Empire and the Future of World Order, 1860-19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다만, 그러한 원탁운동 내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구상은 논자에 따라 다양했다. 예를 들어 「제국연방의 예언자」라 칭해졌던 해당 운동의 중심적 인물인 커티스는, 영국 본국과 이주 식민지 (자치령 제국)에 의해 구성된 초국가적 제국 연방정체 -제국 의회와 제국행정부, 성문의 제국헌법을 구비한-를 계획했다.<sup>19)</sup> 이러한 제도설계는 해당 운동의 다른 제창자들의 그것과 달랐다. 그 중 한 사람인 얀 스무츠 (J.Smuts, 남아연방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제1차 대전 중/후에 원탁운동에 참가)에 의하면, 영연방은 연방제도가 아니라 영국 본국 및 자치령 제국의 지도자에 의해 정기적인 정책회의를 기축으로 한 세계규모의 정부 간 기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스무츠는 그러한 연방을 하나의 우주, 나아가 국제연맹의 선구로서 표현했다.<sup>20)</sup> 「우리들은 단일한 국민도, 단일한 국가도, 제국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 자신에 의한 하나의 전체세계 (a whole world)인 것이다.»<sup>21)</sup>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원탁운동에 종사해, 해당 운동내 「연방」개념의 정의에 불가결한 역할을 부여한 알프레드 지먼 (A.Zimmern)이다. 저명한 고전학자이자 초기 국제정치학자로, 나아가 유대인 철학자 아하드 하암 (Ahad Ha'am)의 사상을 옹호하는 문화 시오니스트로서의 면모도 가졌던 지먼은, 그 하암이 이론화했던 「탈정치적」 유대민족의 관념을 원용해, 영연방이라고 하는 광대한 영역을 대상으로 했던 종족민족주의적인 다원주의 이론을 만들어 낸다.<sup>22)</sup> 그에게 연방은, 영국인을 포함해 유럽으로부터의 다양한 정주 식민자 및 그 자손이 자민족의 문화적 독자성을 가진 채로 「교차적인 비옥화」-본과 같은 어휘이다-를 실행하는 공간이었다. 그러한 주체의 다원성과 그 사이의 상호교류를 이론화하면서, 지먼은 본이나 캘런과 마찬가지로 앵글로 색슨주의, 특히 로스롭 스토타드 등의 생득주의를 논파했다.<sup>23)</sup> 이에 더해 주목할 것은, 그에 의한 연방 다원주의론의 구축에서, 미국 다원주의론자, 특히 캘런과의 대서양을 넘나드는 지적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일견 접점이 그리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한 편의 연방의 이론가 지먼과 다른 편의 미국 문화다원주의자 캘런-을 묶어준 것은, 양자가 공유하는 유대계 태생에 뿌리박힌 소수자 의식이였다.<sup>24)</sup> 양자는 앵글로 색슨주의의 대두 및 그 동화압력이나 폭력적인 배타성에의 위기감에서, 이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이론

18) Andrea Bosco and Alex May eds., *The Round Table: The Empire/Commonwealth and British Foreign Policy* (London: Lothian Foundation Press, 1997).

19) Lionel Curtis, "The Form of an Organic Union of the Empire," privately circulated (1911), Bodleian Library of Commonwealth and African Studies, Rhodes House, Oxford.

20) 「사람들은 국제연맹이나 국제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 성공에 이른 국제정부의 경험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기초를 두었던 영국정부인 것이다.» Jan Smuts, "The Future Constitutional Relations in the Empire"[April 1917], in *War-Time Speeches* (New York: George H. Doran, 1917), p.11.

21) Smuts,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April 1917], in *War-Time Speeches*, pp. 29-30.

22) Tomohito Baji, "Zionist Internationalism?: Alfred Zimmern's Post-Racial Commonwealth," *Modern Intellectual History* 13, no. 3 (2016).

23) Alfred Zimmern, *The Third British Empi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pp. 66-92.

24) Baji, "Zionist Internationalism?," pp. 643-47.



장치를 서로 계발하면서 구상했다. 예를 들어 1914년 캘런이 지먼에게 자신이 품은 다민족 평등의 미국사회의 구상을 전했을 때, 지먼은 캘런에게 지극히 감화되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미국 합중국을 「규모나 이념에서 영연방, 즉 연합왕국이 아니라 우리들이 제국이라 부르는 거대한 연방과 유사하다.」<sup>25)</sup> 지먼은 이 이해를 『민족과 통치』(1918) 중에서 더욱 전개해 「아시아인 (Asiatics), 슬라브인, 이태리인, 유대인, 네덜란드인..., [이들이]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교착되어, 단일한 민족성이 아니라 국가 (statehood)라고 하는 매듭을 통해 묶여 있는 미국」이야말로 「영연방의 축도」라 주장했다.<sup>26)</sup> 이렇게 지먼은 캘런이 그린 다원주의적 미국이라 하는 렌즈를 매개로, 합중국과 유사한 정치체로서 연방을 생각하였다.

나아가 지먼은 캘런이나 본과 마찬가지로, 민족문화를 둘러싼 개개의 특수성과 전체로서의 유기적 일체성을 제창한다. 이 때, 그들 미국의 논자와 함께 아하드 하암의 경쟁적 모방 (competitive imitation)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먼에 의하면 민족은 각각, 주위의 민족문화의 선택적 섭취를 통해 스스로의 문화적 전통의 「부단한 재해석」을 행하여 민족적 자의식과 문화적 독자성을 발전시킨다. 그 때문에 문화적 독자성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그러한 독자성이 불가결하다. 지먼은 이러한 하나와 다수의 조화를 실현하는 일을 「국제주의」-「諸민족의 고상하고 가장 특징적인 표상물이나 현시물 간의 교착」, 즉 문화적 상호교류-라 불렀다. 그가 그린 연방은, 문자 그대로 단순한 모방(「인격의 완전한 상실」)이나 강대한 민족에 의한 문화적 억압(「문화 제국주의」), 혹은 하물며 특정한 인종혈통에 뿌리박힌 우월함을 과시하는 장이 아니다.<sup>27)</sup> 그것은 다원주의적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유럽 식민, 즉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 유대인, 프랑스계 캐나다인,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인, 독일인 등이 전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공존과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는 영역이었다.

#### 4. 자주주의와 유기적 식민제국

동시기, 유사한 다원주의론은 극동의 일본에도 제기되었다.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미국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북미대륙에서의 일본인 이민의 규제였다. 1924년, 미국에서 성립된 존슨=리드법(이른바 배일 이민법)은 많은 일본 지식인들을 분개시켰다. 국제연맹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식민정책학자 니토베 이나조는 「동법이 폐지되기 까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라 공언했다고 한다.<sup>28)</sup> 니토베의 후임으로 동경 제국대학에서 식민정책학을 강의한 야나이하라 다다오도 또한 「미국의 일본이민배척

25) Letter from Zimmern to Kallen, 12 April 1914, Horace Kallen Papers, American Jewish Archives, MS-1. Box 32, Folder 20, folio 49-50.

26) Zimmern, *Nationality and Government* (London: Chatto & Windus, 1918), p. 123.

27) Zimmer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1923], in *The Prospects of Democracy* (London: Chatto & Windus, 1929).

28) Marius Jansen, *The Making of Modern Jap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 522.

에 대하여」(1924)를 저술해 미국의 입법조치를 규탄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그 배제책으로서의 이주는 일본에게 긴밀한 사항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 광대한 토지를 선점한 국민이 그 사회구성의 종족적 단일을 옹호하기 위해, 혹은 그 높은 생활정도를 옹호하기 위해 일본이민에 대한 문호를 막는 것은 그들 국민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과잉 인구가 좁은 영토 내에 쌓여 생활정도의 향상을 억제 받게 될 일본 국민이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있는 일 이겠는가.<sup>29)</sup>

나중에 야나이하라는 이 일절을 정정해, 국제사회의 일반원칙으로서 이민(식민) 문제 해결에서의 「국가적 개인주의」 및 국내주권의 제한을 주창해, 「국제적 단체의 규율에 복종하든지, 혹은 적어도 관계국 간의 임의적 협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뒤집어 보면 이 문제를 둘러싼 그의 국제이론은, 특수 일본인 이민의 경험에 보강되어 있다).<sup>30)</sup> 니토베, 야나이하라는 공히 이 배일 이민법제정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생득주의의 대두를 보았다. 후자에 의하면, 「최근 황색인종의 발전을 가지고 백인의 우월에 대한 위협이라」여기는 「스토다드의 비관론」이 오늘날 미국에 침투해, 일본인 배척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up>31)</sup>

『식민 및 식민정책』(1926)에서 야나이하라가 「자주주의」를 제창할 할 때, 그 배후에는 이러한 일본인 이민의 식민영역확보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가 말하는 자주주의란, 현지의 사회군(群) -인종·종족, 민족, 국민을 포괄하는 상위 카테고리-을 힘으로 복종시키는 「종속주의」나 사회군 간의 「혈액 또는 문화의 융합」을 밀고 나가는 「동화주의」와 달리, 개개의 사회군에서의 문화적, 정신적인 독자성을 승인해,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사회군 전체의 유기적 결합을 꾀하고자 하는 원칙을 지칭한다. 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자주주의는 「각 사회군이 독립된 집단적 인격 (Group Personality)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여 각각이 그 역사적 조건 하에서 가능한 한 발달완성을 이뤄내고, 그리하여 상호간의 협동제후에 의해 인류사회의 세계적 결합을 온전히 함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 요컨대 그것은 「개성을 몰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독립된 사회군 상호간에 투쟁적 상태를 대신하는 협력적 (互助的) 관계를 낳음」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인 것이다.<sup>32)</sup>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 다원주의자나 연방의 이론가 지면과 상통하는 하나와 다수의 조화 및 전체로서의 유기적 일체성을 옹호하는 이론이다 (무엇보다 야나이하라는, 「사회군」이라고 하는 민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추상적인 단위로 말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주지의

29) 矢内原忠雄, 「米国の日本移民排斥に就て」 『経済学論集』第三卷第一号 (1924年), p. 135.

30) 矢内原忠雄, 「米国の日本移民排斥に就て」 『植民政策の新基調』(1927年) 『矢内原忠雄全集 第一卷』(岩波書店, 1963年), p. 609.

31) 矢内原, 「米国の日本移民排斥に就て」 『経済学論集』, p. 129; 矢内原, 「米国の日本移民排斥に就て」 『植民政策の新基調』, p. 600.

32)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1926年) 『矢内原忠雄全集 第一卷』, p. 470.

민족(사회군)과의 적극적인 공존을 제창하는 점에서, 인종주의에 대해 북미대륙에서의 일본인 이민의 생활, 문화공간을 열고자 하는 규범성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야나이하라는, 칸트의 세계시민법을 재해석 해 칸트가 부인했던 「체재법(Grastrecht)」을 역으로 옹호함으로써, 일본인 이민을 포함한 사회군의 월경적인 식민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sup>33)</sup>

다만 야나이하라는, 미국 다원주의자나 영국에서의 지면과는 달리 민족(사회군)에 정치적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의미 또한 부여해, 자주주의 원칙을 정치제도론과 결부시킨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식민지 회의의 설치를 제창하는 그의 일본제국 재편론이다. 잘 알려진 대로 야나이하라는, 조선·타이완 민족에서의 집단적 인격의 승인에 기초한 그들 자신의 자치회의의 설립을 긍정했다. 그에 의하면, 이는 결코 독립의 승인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제국 내의 유기적 연대를 촉진시키는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조선통치의 방침」(1926) 중 그는, 「조선인을 위주로 한 회의」의 창설이야말로 「조선과 일본과의 제국적 결합을 공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논한다. 「집단적 인격의 독립성, 사회생활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식민지는 여기에서 본국에 대한 우의적인 협동, 결합하는 심리적 기초를 얻는다. 우의에 의한 결합만큼 강한 것은 없다.»<sup>34)</sup>

흥미롭게도 이 때 야나이하라는 모델로 삼았던 것이 영연방의 확립을 추구했던 원탁운동의 영국 제국론이었다. 대양과 문명권을 넘어서 특정한 제국구상이 동아시아에 이식된다. 야나이하라의 영국 제국관은 연방을 국제연맹의 선구 및 하나의 우주로 여겼던 스미츠의 그것과 공명한다. 「영제국은 국제연맹 내의 국제연맹이자, 국제연맹의 결합보다 더욱 공고한 것으로서 본다.»<sup>35)</sup> 나아가 야나이하라는 원탁운동의 기관지 『라운드 테이블』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자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독립을 용인하지 않는- 일본제국 재편론과 연방을 중첩시킨다.

자주적인 발달의 원조에서만 제국적 결합의 유지수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연방, 기타 영제국의 자치령은 그 가장 현저한 전형이다. ...자치령의 결합에 의한 영국은, 엄격한 종속주의적 식민주의보다 오히려 공고한 결합을 유지한다. ...자주정책은 결코 식민지의 방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그 독립을 예상하지 않는다.<sup>36)</sup>

이러한 일본제국의 장래와 연방의 유사함은, 반드시 야나이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동시기 메이지 대학에서 식민정책학을 강의하던 이즈미 아키라도, 본국과 조선·타이완과의 사이에 일종의 대등성을 확립하기 위해, 영국에서의 연방론을 적극적

33) 상동, pp. 467-8. 이러한 야나이하라에 의한 칸트의 비판적 원용은, 기존의 야나이하라 연구에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34) 矢内原, 「朝鮮統治の方針」(1926年) 『矢内原忠雄全集 第一卷』, pp. 735, 741, 743.

35) 矢内原, 『植民及植民政策』, pp. 478, 482-3.

36) 矢内原, 「朝鮮統治の方針」, pp. 734-35.

으로 섭취했던 것이다.<sup>37)</sup>

## 5. 끝으로

본고는 20세기 초기, 대서양, 태평양이라고 하는 양대 대양을 넘어서 공시적으로 발전했던 종족 민족주의적인 다원주의를 둘러싼 유사한 사고양식을 분석, 적출해 냈다. 그것은 개별민족의 문화나 집단인격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그들 사이에 상호승인, 상호교류, 그리고 전체로서의 유기적 일체성을 이론화하는, 오늘날의 다문화주의 이론 이전의 (제국 또한 무대로 했던) 다문화주의사상이었다. 본고는 문명권을 횡단하는 지적 공명 및 부분적인 상호영향 하에서 성립된 이러한 특정한 언설공동체를, 기존의 정치사상사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에 의해서는 묘사해 내기 어려운 주요 케이스의 하나로서 제출한 것이다.

37) 泉哲, 『植民地統治論』(有斐閣, 1921年); 酒井哲哉, 『近代日本の国際秩序論』(岩波書店, 2007年), pp. 210-11.